

일본, 폴리에틸렌 구조조정 박차!

JPC-JPO, HDPE 2라인 가동중단 ... PP는 S&B 통해 효율화 추진

Japan Polychem과 Japan Polyolefin은 폴리에틸렌 통합을 앞두고 2사의 Kawasaki 소재 HDPE 2라인의 가동을 중지했다.

사업통합에 따른 합리화 효과는 이미 50억엔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50억엔을 추가할 계획이다. 2004년 가을에는 Yokkaichi 공장의 LDPE 설비도 가동을 중지할 방침이다.

Sumitomo Chemical과 PO 사업 통합을 백지화한 Mitsui Chemicals도 범용 HDPE 사업의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있다. Sumitomo Chemical도 Chiba Polyethylene(Tosoh와 합작)의 LLDPE 설비에 대해 일부를 개조한 새로운 타입의 PE 사업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PP 부문에서는 Mitsui Chemicals이 Osaka 공장을 Propylene Center로 전환하는 것과 병행해 30만톤의 신설과 Takaishi 및 Sakai의 3개 생산설비를 가동중지하는 S&B(Scrap & Build)에 착수했다. 신설 플랜트는 늦어도 2004년 여름 가동할 예정이다.

Idemitsu Petrochemical은 Tokuyama로부터 PP 영업을 양도받음으로써 20만톤 플랜트 신설(2003년 5월 가동)과 14만톤 플랜트의 가동중지를 병행 실시했다.

Sumitomo Chemical도 Chiba 공장의 용매법 7만톤 설비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한편, 기상법 플랜트를 20만톤 증설해 경쟁력 향상에 나서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23>